

경찰, 폭력에 5단계 대응한다

경찰이 직무 집행 과정에서 상대 방 행위에 따라 수갑에서 권총까지 사용할 수 있는 5단계 위해 대응 기준을 마련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지난 20일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전국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기준이 될 예정이다.

제정안에는 경찰이 대상자 행위의 위해 수준을 5개 단계로 나누고 그에 따른 물리력 행사 방식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무기·장구 사용에 관한 규정, 전자충격기·수갑 등 내부 장구 사용매뉴얼 등을 통해 물리력을 행사했으나 대부분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일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엔 상대방의 행위의 위험 정도에 따른 대응 기준을 마련,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물리력을 단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현장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먼저 경찰관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는 '순응' 상태인 경우에는 말로 협조를 유도하고, 체포할 경우에는 수갑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

상대가 움직이지 않거나 일부러 몸의 힘을 빼거나 고정된 물체를 붙잡고 버티는 등의 '소극적 저항'일 때는 신체 일부에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경찰봉으로 밀거나 잡아당길 수 있도록 했다.

체포·연행하려는 경찰에게서 도망가려 하는 경우, 경찰의 손을 뿌리치고 밟고 잡싸는 '적극적 저항' 상태에서는 관절짜기 등 강한 신체 제압을 할 수 있고, 보충적으로 분사기를 쓸 수 있게 된다.

폭행 자세를 취해 그 행사가 압박 또는 강하게 밀거나 주먹·발 등을 사용한 공격이 있는 '폭력적 공격'에서는 경찰봉을 이용해 가격하거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일례로 최근 '대립동 여경' 사건으로 불린 서울 구로구 구로동 거리에서 취객이 경찰관 뺨을 때리는 등의 상황이 벌어진 경우라면 '폭력적 공격' 수준에 해당하므로 기준에 따라 경찰봉으로 가격하거나 전자충격기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높은 단계인 총기류, 흉기, 둔기를 휘두르거나 무차별 폭행이 있는 등 '치명적 공격' 상태에서는 경찰로 하여금 경찰봉·방패 등 무기로 급소를 가격하거나 권총까지 쓸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집회·시위는 범죄 혐의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 행위별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 첫 마련

순응, 소극·적극 저항, 폭력·치명 공격

'객관적 상황, 낮은 방식으로 최소화' 원칙도

곧바로 이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해산 명령에 불응해 연행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지휘관 판단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

경찰은 물리력 행사로 인해 부상자가 생기면 즉시 병원에 옮기고 보호자에게 알리는 등 조치 사항도 규정했다. 경찰관이 총기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행사자에 대한 고려도 담겼다.

다만 제정안은 경찰관이 물리력을 ▲객관적 합리성 ▲행위·물리력 상용 ▲위해감소 노력 우선 원칙에 따라 사용하도록 정했다.

즉, 행위의 단계를 보통의 경찰관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고려해 해석하고 현장에서는 원칙적으로 대응을 대화 등 낮은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능하면 전자충격기보다는 경찰봉, 무기보다는 신체를 통한 제압, 물리적 통제보다는 언어를 통한 통제 등 낮은 단계의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물론 신체·생명 등에 대해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 갑자기 도래하는 등 급박한 상황인 경우에는 곧바로 단계에 준하는 강한 제재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라도 총기 사용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또 수단은 공인된 것만 인정하며, 성별·장애·인종·성정체성 등에 대한 선입견으로 대상을 차별하는 방식이나 장벽·복수·상황의 빠른 종결·직무수행의 편의 등을 위한 물리력 행사는 금지된다.

이 같은 내용의 제정안은 경찰청 예규로 발령되며, 경과 기간을 6개월 거쳐 오는 11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경과 기간동안 현장 경찰관들에게 해당 기준과 대응 요령을 교육하고, 관련 정비체계를 다듬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장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물리력 사용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관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스스



가시박을 제거하라 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을 맞아 22일 오전 대구 달서구 대천동 달성습지 일대에서 열린 '생태계 교란 생물 가시박 제거 및 환경정화 활동'에서 대구시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이 토종식물을 지키기 위해 가시박을 제거하고 있다.

공동주택 화재정보음 더 요란해진다

깊은 잠에 빠져 화재 경보음을 듣지 못하고 잠편 당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3월 7일부터 76일간 '공동주택 화재 원인 및 피해자 행동패턴 조사'를 거쳐 마련한 개선과제 10건을 22일 발표했다.

이 조사를 보면 2014~2018년 5년간 공동주택에서 2만4084건의 불이 나 285명이 목숨을 잃었다.

공동주택 화재의 61.8%(1만482건)가 '부주의' 탓이었고, 부주의 화재의 56.2%는 담배꽂이를 멋대로

버렸거나 음식물 조리 도중에 자리를 비웠다가 발생했다.

부주의에 의한 화재 사망자는 50명으로 '방화(의심 포함·76명)' 다음으로 많았다.

화재 시간대별 사망자는 '새벽 1~3시(44명)'가 가장 많았다. 특히 통상 수면 시간대인 '오후 11시~오전 7시'에 12명이 숨져 활동량이 많은 '오전 7시~오후 1시(59명)'와 '오후 1~11시(105명)'에 비해 사망자 수가 많았다.

실제로 화재 발생 시 사망자 3명

중 1명꼴로 '수면 상태(29.5%·8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불이 난 줄도 모른 채 잠들었다가 번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화재경보 음량 기준을 높기로 했다.

기존 '음향장치 1m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dB) 이상'에서 공사장 소음 수준인 75데시벨(dB) 이상이 침실까지 들리도록 하는 식이다.

공동주택 계약 및 입주 시 공인 중개사와 공동주택 관리자가 거주자에게 피난시설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노후 공동주택 내 전기설비도 정기점검하도록 했다.

뉴스스

獨 딸기 과수원서 90만원어치 도난 당해

독일 서부에서 하룻밤만에 딸기 700유로(약 93만원) 어치가 도난 당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21일(현지시간) BBC는 독일 현지언론을 인용해 서부 라인란트팔츠 주(州) 랍프하임 지역에서 한 일당이 과수원의 딸기 3분의 2를 훔쳐 달아났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도둑들은 조직적으로 행동했으며 이 많은 양을 싣고 떠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도난 규모를 고려했을 때 분명 목격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독일 유력주간지 '슈피겔'에 따르면 딸기는 독일에서 가장 거래가 활발한 농산물이다. 독일은 수요를 맞추기 위해 매해 딸기 14만t을 자체 생산하고 있다. 스페인 등에서도 10만t 가량을 수입한다.

라인팔츠에 따르면 딸기는 최근 몇 년동안 도둑들이 가장 눈독 들이는 작물이 됐다.

작년에는 라인란트팔츠 주 비트 조베른하임 지역에서 렌트카를 이용해 딸기를 훔친 일당이 잡히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도둑들이 이처럼 뻔뻔한 것은 아니라고 BBC는 전했다.

남부 콘스탄츠 지역에서 딸기를 훔친 한 사람은 지역 신문에 편지와 함께 20유로(약 2만6000원)를 등봉해 보내기도 했다. 편지에는 "25년 전 콘스탄츠의 농가에서 딸기를 몰래 먹었다. 당시의 일을 굉장히 후회한다"며 "사과를 하고 보상하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피해를 입은 농부는 매우 감동적이라며 익명의 기고가를 용서하겠다고 말했다.

알래스카서 비행기 추락 역학자 등 2명 숨져

미국 알래스카주 동남부의 항공 도시 케치칸에서 수상(폴로트)항공기가 20일 오후에 추락하면서 타고 있던 주 보건 당국의 여성 전염병학자가 숨졌다고 주정부 산하 원주민보건기구인 알래스카 원주민 보건 콘서시엄이 2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날 사망한 세라 루나버시는 거의 1년전부터 이 단체에 합류해서 일해왔다. 설리 영 대변인은 루나버시 알래스카의 메틀라트카를 라 부족의 지역으로 보건 서비스를 위해서 비행하다가 수송기가 추락하면서 숨졌다고 밝혔다.

루나의 삼촌 카를로스 루나는 조카딸이 32세이며 캘리포니아주 카메리요 출신이라고 말했다.

타칸 에어가 운영하는 비버 수상폴로트기의 조종사도 메틀라트카라 항공에 추락할 때 루나와 함께 사망했지만 가족에게 통보가 끝나지 않아서 이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 지역에서는 앞서 5월 13일에도 타칸 에어 소속의 오터 수송기와 다른 수송기가 공중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8명이 죽고 10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

연방항공청 관리들은 1주일 새 두 번이나 사망사고를 낸 이 수상비행기의 운영회사가 자발적으로 수송기 운행을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연방 항공청은 관광용과 지역 교통을 위한 통근용 수송기 등의 운행을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타칸 에어측은 아직 여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 알래스카 지국의 클린트 존슨은 지난 주 수송기 충돌은 착륙 도중에 일어난 것이라는 목격자들의 말을 전했다. 13일 충돌사고에 이어 21일에도 같은 지역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자 항공당국은 추락한 항공기를 예인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티 반군, 폭탄 드론으로 사우디 공항 공격

예멘 후티 반군이 21일(현지시간) 폭탄을 실은 드론(무인기)으로 사우디 아라비아 남부 나지란 공항을 공격했다. 사상자와 피해 규모는 현재 알려지지 않고 있다.

후티 반군이 운영하는 알마시라 위성방송은 이날 오전 사우디 수도 리아드에서 남쪽으로 840km 떨어진 나지란 공항내 무기 저장고를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나지란 공항은 민간 공항이지만 사우디는 예멘 국경과 인접한 이 곳에 군사 시설을 운영해왔다. 나지란 고항에는 미군 시설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미국 정보원들이 나지란 공항에 근거지를 두고 사우디군과 미 육군 그린베레의 예멘 국경 배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머릿에는요...
자폐치료장애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